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긍정심리자본이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박정현¹, 장경애², 조미숙^{3*}

¹대구보건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²신라대학교 보건복지대학 치위생학과 부교수, ³춘해보건대학교 치위생과 부교수

The effects of dental hygiene student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communication skills and interpersonal skills

Jung-hyun Park¹, Kyeong-Ae Jang², Mi-Sook Cho^{3*}

¹Assistant Professor, Dental Hygiene department, Daegu health College

²Associate Professor, Dental Hygiene department at College of Health and Welfare, Silla University

³Associate Professor, Dental Hygiene department,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s

요약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일부 지역 대학교 학생들의 긍정심리 자본이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조사하였다. 주요 변인들과의 관련성 결과 긍정심리 자본의 하위 요인인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능력에서 정적인 상관을 모두 가지고 있어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긍정심리 자본이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희망($p < 0.01$), 회복력($p < 0.05$)이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긍정심리 자본이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회복력($p < 0.001$), 자기효능감($p < 0.05$), 희망($p < 0.05$)이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긍정심리 자본의 중요성을 확립시키고, 긍정심리자본을 강화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의사소통능력, 자기효능감, 희망, 대인관계능력, 낙관주의, 긍정심리자본, 회복력

Abstract The aim of this survey has been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students from some universities in Busan and Ulsan on communication skills and interpersonal skills. As a result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main variables,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ub-factor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each ability. Hope($p < 0.01$) and Resiliency($p < 0.05$) among the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communication skill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in case of those on interpersonal skills, Resiliency($p < 0.001$), Efficacy($p < 0.05$), and Hope($p < 0.05$)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an intervention program that can establish the importance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strength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 order to improve students'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skills.

Key Words : Communication Skills, Efficacy, Hope, Interpersonal Skills, Optimism,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Resiliency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끊임없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관계를 맺

는다. 초기 성인기로 이행하는 대학생 시기는 이전 학령기에 경험하지 못한 사회적 집단과 다양한 형태의 문화를 통해 급격하게 증가한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되다.

*Corresponding Author : Mi-Sook Cho(cms4935@ch.ac.kr)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람들과 폭넓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대인관계능력이 필요하다[1].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인간관계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기 위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된다[2]. 의사소통은 사회생활에서 상호 간의 이해와 동의를 얻기 위한 주요수단이며, 대인관계에 기본이 되므로 상호 필연적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함께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가 낮을수록 대인 불안이 나타날 수 있는데 긍정적인 정서 확장 경험은 사회적 효능감을 향상할 수 있다[3]. 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적응적 정서 조절방략을 적용하여 개인의 자아존중감 증진과 더불어 정서를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4]. 또한 의사소통 능력과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은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이 있으며[5], 긍정 감정이 대인 갈등의 관계 손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6]. 그러나 요즘 대학생들이 처한 환경은 어려운 취업난과 과열된 경쟁 속에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심리적 불안감과 우울 증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심리적 부정적 감정은 대인기피증이나 자신감 결여로 이어질 수 있다. 대인 관계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우울감과 자기효능감을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7].

긍정심리 자본이란 개인이 발전을 추구하는 긍정적 심리 상태를 의미하며, 4가지 하위영역인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력의 영역을 통합하는 상위개념이다[8]. 4가지의 심리적 자원이 상호작용을 통해 다차원적인 심리적 자원을 이루어 한 개의 통합된 긍정심리 자본으로 형성이 된다고 하였다[9]. 긍정심리 자본의 속성은 긍정적 인지를 통해 감정으로 표현 되는 복합적인 심리 역량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자원이라고 하였다[10].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긍정심리 자본은 대인관계와 상관관계가 있으며[11], 의사소통 능력에 긍정심리 자본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그리고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다[13]. 대학생 시기는 미래를 대비하고 성공적인 사회구성원으로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에 사회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대인관계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심리 자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대학생들의 긍정

심리 자본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치위생 분야에서는 대인관계 또는 의사소통 관련 선행 연구들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긍정심리 자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긍정심리 자본,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도를 알아보고, 긍정심리 자본이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긍정심리 자본이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2019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20일까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일부 지역 대학교 치위생(학)과의 학생을 대상으로 임의 표본추출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이해한 후 설문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208명 중 성실한 응답을 한 190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2 연구방법

긍정심리 자본은 이와 최[14]가 사용한 연구 도구를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총 24문항으로 하위요인은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력으로 각 6문항으로 구분하였다. 설문 문항의 응답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심리 자본이 높음을 나타내었다.

의사소통 능력은 이 등[15]이 사용한 연구 도구를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총 4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의 응답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부정적인 문항의 경우는 역산으로 변환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음을 나타내었다.

대인관계능력은 박 등[16]이 사용한 연구 도구를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총 3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의 응답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부정적인 경우 역산으로 변환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음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타당성 검증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KMO 값은 표본 적합도를 0.5 이상으로 선택하였다. 각 문항의 Cronbach's α 는 긍정심리 자본 0.934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은 자기효

능감 희망 0.706, 복원력 0.663, 낙관주의 0.753, 자기 효능감 0.661, 희망 0.783, 낙관주의 0.894, 회복력 0.880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능력은 0.982, 대인관계 능력은 0.969로 나타났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수집된 자료를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05에서 검정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긍정심리 자본,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능력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긍정심리 자본의 하위요인,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긍정심리 자본이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을 종속변수로 하고 긍정심리 자본의 하위요인인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와 회복력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2 프로그램으로 산출하였고, 조건은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80으로 최소의 표본 크기가 178명으로 산출되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208명으로 선정하고, 그중 자료처리가 곤란한 설문지는 제외하여 190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자 97.4%, 남자 2.6%로 나타났고, 학년은 1학년 50.0%, 2학년 48.9%, 3학년 1.1%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은 중 76.8%, 하 12.6%, 상 10.6%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90)

Classification	Categories	N	%
sex	Male	185	97.4
	Female	5	2.6
Grade	1	95	50.0
	2	93	48.9
	3	2	1.1
Score	High	20	10.6
	Middle	146	76.8
	Low	24	12.6

3.2 연구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능력 정도

연구대상자의 긍정심리 자본,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능력 정도는 Table 2와 같다. 긍정심리 자본의 평균은 3.50점으로 나타났고, 하위 요인은 자기효능감 3.58점, 낙관주의 3.52점, 희망 3.50점, 회복력 3.40점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능력 정도의 평균은 3.58점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은 고정 관념적 사고극복과 타인 관점 이해는 각각 3.8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기 드러내기 3.68점, 경청 3.61점, 주도적 의사소통 3.45점, 창의적 의사소통 3.40점, 정보수집 3.34점 순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능력 정도의 평균은 3.60점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은 타인지향이 4.0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기표현 3.92점, 자신감 3.89점, 신뢰감 형성 3.42점, 상호작용관리 2.95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Statistical results of respondent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communication skills, and interpersonal skills (N=190)

Characteristic		M±S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Efficacy	3.58±0.62
	Hope	3.50±0.76
	Optimism	3.52±0.80
	Resiliency	3.40±0.45
	Total	3.50±0.57
Communication Skills	Data Collection	3.34±0.93
	Listening	3.61±0.94
	Overcoming Stereotypes	3.80±1.09
	Creativity	3.40±1.02
	Self-Disclosure	3.68±1.04
	Initiative	3.45±1.08
	Empathy	3.80±1.04
Total	3.58±0.90	
Interpersonal Skills	Confidence	3.89±1.00
	Other-Orientation	4.00±0.88
	Self-Presentation	3.92±0.91
	Interaction Management	2.95±1.04
	Building Trust	3.42±0.97
Total	3.60±0.82	

3.3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상관관계

긍정심리 자본의 하위요인,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긍정심리 자본의 하위요인인 자기효능감은 희망($r=.511, p<0.01$), 낙관주의($r=.498, p<0.01$), 회복력($r=.460, p<0.01$), 의사소통 능력($r=.249<0.01$), 대인관계능력($r=.236, p<0.01$)

순으로 정적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희망은 회복력($r=.765, p<0.01$), 낙관주의($r=.724, p<0.01$), 대인관계 능력($r=.575, p<0.01$), 의사소통 능력($r=.560, p<0.01$) 순으로 정적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낙관주의는 회복력($r=.865, p<0.01$), 대인관계능력($r=.624, p<0.01$), 의사소통 능력($r=.536, p<0.01$) 순으로 정적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회복력은 대인관계능력($r=.672, p<0.01$), 의사소통 능력($r=.568, p<0.01$) 순으로 정적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의사소통 능력은 대인관계능력($r=.714, p<0.01$) 과 정적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N=190)

	1	2	3	4	5	6
1	-					
2	.511**	-				
3	.498**	.724**	-			
4	.460**	.765**	.865**	-		
5	.249**	.560**	.536**	.568**	-	
6	.236**	.575**	.624**	.672**	.714**	-

The data were analyzed by person correlation coefficient.
** $p<0.01$
1. Efficacy, 2. Hope, 3. Optimism, 4. Resiliency, 5. Communication Skills, 6. Interpersonal Skills.

3.4 긍정심리자본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 자본이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4와 같다. 의사소통 능력을 종속변수로 하고, 긍정심리 자본의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긍정심리 자본이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희망($p<0.01$), 회복력($p<0.05$)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Table 4.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communication skills (N=190)

Independence variable	Dependence variable			
	β	S.E	EXP(β)	ρ
constant	1.001	.421		.019
Efficacy	.196	.139	.098	.162
Hope	.465	.139	.320	.001
Optimism	.154	.136	.136	.260
Resiliency	.298	.152	.250	.041

* $p<0.05$
F=27.044, $p<0.001$, $R^2=0.370$
The data were analysed by the linear regression analysis.
Do not show variables that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p>.05$).

3.5 긍정심리자본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 자본이 대인관계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5와 같다. 대인관계능력을 종속변수로 하고, 긍정심리 자본의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긍정심리 자본이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자기효능감($p<0.05$), 희망($p<0.05$), 회복력($p<0.001$)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Table 5.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interpersonal skills (N=190)

Independence variable	Dependence variable			
	β	S.E	EXP(β)	ρ
constant	1.323	.347		$p<0.001$
Efficacy	.269	.115	.148	.020
Hope	.233	.114	.177	.042
Optimism	.189	.112	.185	.092
Resiliency	.482	.125	.445	$p<0.001$

* $p<0.05$, F=42.586, $p<0.001$, $R^2=0.469$
The data were analysed by the linear regression analysis.
Do not show variables that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p>.05$).

4. 고찰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긍정심리 자본 수준과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도를 파악하고, 긍정심리 자본이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도된 연구이다.

대상자의 긍정심리 자본 정도를 5점 척도로 본 결과 3.5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17]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 자본 3.45점으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치위생(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이 3.24점으로 나타나[18],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기존 치위생(학)과 학생들 대상으로 긍정심리 자본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 비교 고찰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임[18]의 연구는 본 연구자의 선행 연구에서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은 3.58점, 대인관계능력은 3.6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조[19] 등의 연구에서 치위생과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3.31점으로 나타났고, 김[5] 등의 연구에서 대인관계능력이 3.2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지만 비슷한 결과로 여겨진다.

긍정심리 자본이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의사소통 능력에는 희망과 회복력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대인관계 능력에 회복력, 자기효능감, 희망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은 서로 다른 타인과 상호작용을 할 때 필요한 능력으로 새롭고 복잡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할 수 있다는 동기 부여와 자신감,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12] 등의 연구에서 심리 유형과 의사소통 능력과의 관계에서 긍정심리 자본이 의미 있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에서 자기효능감과 회복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회복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상호 교환적으로 의견과 감정을 교류하는 개방적 의사소통 능력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13]. 또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희망이라는 긍정적인 정서가 사회적 효능감을 향상한다고 보고하였다[3]. 변화하는 상황에 적절한 자아 통제를 하며 융통성 있게 반응하는 자아 탄력성은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20]. 그리고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 탄력성이 대인 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자아 탄력성이 높을수록 대인 관계능력이 좋아졌다고 보고하였다[21]. 또한 긍정심리 자본은 대학 생활의 사회적 및 정서적 적응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여 포괄적 의미에서 대인관계와 관련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위의 결과들은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대상으로 한 긍정심리 자본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하여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긍정심리 자본의 하위개념인 희망, 복원력, 자기효능감의 개념적 의미로 해석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대학생들이 사회구성원이 되어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심리 자본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와 관련된 교과과정의 개설과 더불어 긍정심리 자본을 강화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부 지역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단면조사이므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긍정심리 자본에 대한 선행연구가 시작이 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 해석함에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치위생 분야에서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긍정심리 자본과 직무만족, 이직도, 직무성과 등과 관련된 후속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긍정심리 자본을 향상하는 프로그램 개발·적용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일부 지역의 대학교 치위생(학)과 학생 190명을 대상으로 긍정심리 자본이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1. 긍정심리 자본의 평균은 3.50점으로 나타났고, 하위 요인은 자기효능감이 3.5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사소통 능력의 평균은 3.58점으로 나타났고, 하위 요인은 고정 관념적 사고극복이 3.8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의 평균은 3.60점으로 나타났고, 하위 요인은 타인 지향 4.0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긍정심리 자본의 하위요인,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자기효능감은 희망($r=.511$, $p<0.01$), 희망은 회복력($r=.765$, $p<0.01$), 낙관주의는 회복력($r=.865$, $p<0.01$), 회복력은 대인관계능력($r=.672$, $p<0.01$), 의사소통능력은 대인관계능력($r=.714$, $p<0.01$)과 정적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3. 긍정심리 자본이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희망($p<0.01$), 회복력($p<0.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긍정심리자본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회복력($p<0.001$), 자기효능감($p<0.05$), 희망($p<0.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긍정심리 자본이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의사소통 능력은 희망과 회복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대인관계역량은 희망과 회복력,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긍정심리 자본의 중요성을 확립시키고, 긍정심리 자본을 강화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E. H. Erikson . (1980).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 2nd ed. Norton & Company Incorporation.
- [2] H. S. Lee & E. H. Choi & M. Y. Whang. (2009). Effects of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Conflict Resolution Styles, and Self-Esteem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6(2), 1-22.
- [3] Y. S. Kim & H. S. Kwon. (2015). The effectiveness of positive emotion program on improving social efficacy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6(6), 351-367.
DOI : 10.15703/kjc.16.6.201512.351
- [4] M. S. Lee & K. M. Chae. (2012).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12(1), 63-75.
- [5] S. J. Kim & H. H. Kim. (2013). Impact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Empathy Abilitie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 Dent Hyg Sci*, 13(3), 304-313
- [6] S. Y. Oh & Y. W. Suh. (2015). The Buffering Effects of Positive Emo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Conflict and Relationship Damage : A Moderated Mediation Study. *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28(4), 663-688.
DOI : 10.24230/ksiop.28.4.201511.663
- [7] G. W. Seo & M. J. Kwon. (2017). Influencing of Self-efficacy and Depressive symptom o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6), 439-449.
DOI : 10.14257/ajmahs.2017.06.2
- [8] F. Luthans, K. W. Luthans & B. C. Luthans. (2004).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beyond human and social capital. *Business Horizons*, 47(1), 45-50.
- [9] S. Hobfoll. (2002). Social and psychological resources and adaptation.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6(4), 307-324.
DOI : 10.1037/1089-2680.6.4.307
- [10] S. N. Lee & J. A. Kim. (2017). Concept Analysi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J Korean Acad Nurs Adm*, 23(2), 181-190.
DOI : 10.11111/jkana.2017.23.2.181
- [11] D. O. Kim & H. J. Lee & A. Y. Lee. (2020). A Study on Relationship among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Physical Health Status, Depress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Learning Flow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1(1), 349-357.
DOI : 10.15207/JKCS.2020.11.1.249
- [12] M. S. Kim & H. C. Seo. (2018). Path Analysis of Geometric Psychology typ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for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6), 355-364.
DOI : 10.5762/KAIS.2018.19.6.355
- [13] Y. R. Kim. (2019). The Impact of Social Welfare University Students' Resilience and Multi-dimensional Self-esteem on the Communication Opennes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HSS21)*, 10(1), 201-216.
DOI : 10.22143/HSS21.10.1.15
- [14] D. S. Lee, Y. D. Choi. (2010). A Study on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 Organization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39(1), 1-28.
- [15] S. J. Lee. (2003).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s*, 16(35), 134-141.
- [16] S. W. Park, J. H. Seol, S. M. Cheon (201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interpersonal competence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24(4), 723-738.
- [17] Y. M. Kim. (2017).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Emotional Intelligence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7), 309-323.
DOI : 10.14257/ajmahs.2017.07.17.
- [18] S. A. Lim. (2016). Communication ability according to self-awareness and other-awareness in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Dent Hyg Sci*,

16(5), 733-40.

DOI : 10.13065/jksdh.2016.16.05.733

- [19] M. S Cho & J. H. Park & K. A. Jang. (2019). Convergent Relationship between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College Life Adaptation in Freshmen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10), 195-202.
DOI : 10.22156/CS4SMB.2019.9.10.195
- [20] M. O. Chae. (2016). Ego resilience, Empathic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5), 95-103.
DOI : 10.5762/KAIS.2016.17.5.95
- [21] H. J. Han & K. E. Kim. (2015). Interpersonal Skills Caused by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 Resilience of Students Majoring in Dental Hygiene. *Dent Hyg Sci.*, 15(6), 746-75.
DOI : 10.17135/jdhs.2015.15.6.746

박 정 현(Park, Jung Hyun)

[정회원]



- 2010년 8월 : 고신대학교 구강보건학 전공 (보건학석사)
- 2015년 2월 : 고신대학교 구강보건학 전공 (보건학박사)
- 2013년 3월 ~ 2018년 2월 : 춘해보건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 2018년 3월 ~ 현재 : 대구보건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치과임상학, 치과교정학
- E-Mail : akrta81@dhc.ac.kr

장 경 애(Jang, Kyeong Ae)

[정회원]



- 2008년 2월 : 조선대학교 구강보건학 전공 (보건학석사)
- 2011년 2월 : 고신대학교 구강보건학 전공 (보건학박사)
- 2011년 3월 ~ 2012년 2월 : 동의대학교 치위생학과 전임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신라대학교 치위생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공중구강보건학, 구강보건교육학
- E-Mail : jka@silla.ac.kr

조 미 숙(Cho, Mi Sook)

[정회원]



- 2010년 2월 : 고신대학교 구강보건학 전공 (보건학석사)
- 2013년 2월 : 고신대학교 예방의학 전공 (의학박사)
- 2010년 3월 ~ 2012년 2월 : 마산대학교 치위생과 전임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춘해보건대학교 치위생과 부교수
- 관심분야 : 공중구강보건학, 지역사회구강보건학
- E-Mail : cms4935@ch.ac.kr